

구상형

평소 소심하고 가끔 거짓말을 하는 건우. 유치원에서는 재활용품으로 건축물 만들기 놀이가 한창이다. 건우와 지연이는 서로 건축물을 쌓고 있었다. 건우는 지연이에게 옆에 있는 블록 3개를 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지연이는 옆에 있는 블록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였다. 건우는 지연이 옆의 블록을 가져가고자 했으나, 지연이의 건물을 실수로 무너뜨린다.

지연 : 야! 너 때문에 내 탑이 무너졌잖아.  
건우 : 어...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넘어진거야!  
지연 : 아니야, 너가 무너뜨리는 거 다 봤거든!

다른 아이들을 보느라 놀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교사는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을 바라본다.

교사 : 애들아, 무슨 일이니?  
지연 : 건우가 제 탑 무너뜨렸어요  
건우 : 음... 아니에요, 바람이 분거예요!  
교사 : (건우의 말을 가볍게 들으며) 건우는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건우 : (작고 속상해 하는 목소리로) 나는 거짓말쟁이 인가봐.  
교사 : (건우의 말을 듣지 못하고) 건우는 휴식 영역에서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과 다시 탑 쌓기를 하자.

위에서 교사의 지도상 문제점과 바람직한 지도방안을 3가지 말하시오.

## 구상형 답변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놀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는 중요합니다. 이에 사례 속 교사의 지도상 문제점과 지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지도한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례 속에서 최 교사는 다른 영역에서 유아들을 지원하고 있었기에 건우와 지연이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유아들을 지도할 경우, 바람직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도 방안으로는 건우와 지연이 두 유아의 입장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어보며 각 아동의 입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각 아동의 입장을 두 유아에게 전달해주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거짓말쟁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유아를 질책한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질책할 경우, 다른 유아들을 포함하여 건우 또한 자기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거짓말쟁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해 낙인이 될 경우, 건우가 다른 유아들과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바람직한 지도 방안으로는 거짓말쟁이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유아가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친절한 말투로 알려줌으로써 유아 스스로 거짓말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잠시 쉬었다가 놀이하자고 말하며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전환한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유아들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지원해야 하는 적절한 방안은 해당 상황을 넘어가기보다는 유아들에게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하는지 지도해야 하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려줌으로써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너진 탑을 두 유아가 함께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즉답형1

박 교사는 만 5세 반 학급의 담임이다. 초등학교와의 연계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역할 놀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흥미를 보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 5세 지우는 “이거 왜 해야 해요?”, “어려워요.”와 같은 말을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거부하고 있다. 박 교사는 어려워하는 지우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떤 역할 놀이를 지원해야 하는지 몰라 교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 박 교사에게 필요한 교직 태도와 그 이유를 2가지 말하시오.

## 즉답형 2

김 교사와 윤 교사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사들이다. 김 교사는 윤 교사 학급과의 공용 복도에서 일주일간 유아들의 놀이를 진행하였고, 윤 교사는 이에 대해 김 교사에게 “왜 계속해서 복도에서 놀이를 진행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며 불만을 표현했다. 그러자 김 교사는 “전시할 곳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김 교사는 윤 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으나, 유아들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상황에 대해 사과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과 그 이유를 2가지 말하시오.

## 즉답형1 답변

박 교사에게 필요한 교직 태도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어려워하며 흥미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적절한 활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요구에 적절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이후 유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적절한 활동과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구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례 속 박 교사도 어떠한 역할 놀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함께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이 프로그램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유치원의 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공유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즉답형2 답변

김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윤 교사의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교사와 윤 교사 두 학급의 공용 복도로,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윤 교사는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 교사는 이러한 윤 교사의 불편함을 알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두 교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해당 공용 복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윤 교사의 학급과 김 교사의 학급 모두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김 교사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김 교사 학급의 아이들이 공용 복도에서 놀이해야만 하는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고, 김 교사 자신이 느낀 미안한 마음을 바탕으로 윤 교사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